

<부록>

창세기 9:1-17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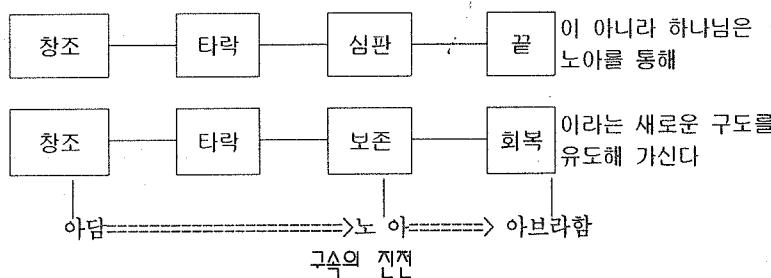
· 하나님의 보존 언약 ·

I. 창세기에서 이 본문의 위치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 중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각시킨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속에 있는 인류의 조상 중 창세기에 구별되어 나타나는 세 사람이 있다. 첫째는 창조시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요, 둘째는 타락시 온 족속의 대표인 노아요, 셋째는 선택시 온 성도의 대표인 아브라함이다. 이 중 아담과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인류의 조상과 믿음의 조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특별히 노아만은 그 중요한 위치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치 못해 왔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첫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변질되고 오염된 이후 하나님이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지만,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새롭게 하시면서 노아에게 이 세상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담을 창조와 연관시킨다면, 노아는 보존과, 아브라함은 회복과 연관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의 타락이 급속도로 진전되어 죄악이 세상에 판영하자 정결한 인류와 생물들을 보존코자 홍수 심판을 단행하신다. 그러나, 홍수 후에도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아시고 더이상 죄 때문에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악한대로 계속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보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통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노아는 아담과 아브라함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II. 주석적 단위 설정

하나님의 노아와의 보존의 언약을 다루기에 적합한 본문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 세가지 경우수가 있다. 첫째는 홍수가 끝나 방주에서 나온 8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멸하지 않기로 결심하시는 8장 20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9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둘째와 셋째가 유력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셋째가 가장 온당하겠다.

이 본문 선택은 앞의 홍수 사건과 관련된 부분임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특별히 홍수 사건 중에서 7-8장은 홍수의 사건을 다루는 한 단위이다. 창 7:1-5은 홍수 심판에 대한 대비이고, 7:6-12은 홍수 심판의 시작이다. 반면, 8:13-19는 홍수 심판의 끝이고, 8:20-22는 홍수 심판에 대한 결산이다.

- a 창 7:01-05 홍수 심판에 대한 대비
 - b 창 8:06-12 홍수 심판의 시작
 - x 창 7:13-8:12 홍수 심판
 - b' 창 8:13-19 홍수 심판의 끝
 - a' 창 8:20-22 홍수 심판에 대한 결산
- parallel

1. 8:13-19에 대해

위와 구조에 의해 본문의 단위를 8:13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좀더 구체적인 대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 7:6-12(홍수 시작)

11절 홍수 시작(노아 600세 2월 17일) 13절 홍수 끝(노아 601세 1월 1일)

깊음의 셈, 하늘의 창 열려 홍수 지면에 물이 겹침

10절 홍수가 땅에 덮임 14절 땅이 마름

7-9절 방주에 들어감 15-19절 방주에서 나옴 15-19절 사람(7절) 사람(16, 18절)

생물(8-9절) 생물(17, 20절)

(17절에 생물의 생육, 번성 축복)

창 8:12-19(홍수 끝)

이 구도에서 8:17에 생물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하는 것은 창 6:1-20의 성취이다. 또한 9:1, 7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축복과도 대비됨으로 창 8:1-3부터 본문의 단위로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8:20-22에 대해

이 부분도 역시 위와 마찬가지이다.

창 7:1-5(홍수에 대한 대비)

1절 노아의 의로움
2절 정결한 짐승을 취함
3-4절 유전하라-멸하시리라
5절 노아가 명하신 대로 준행함

(21절 번체를 흡향하시고 땅, 생물 보존 결심)

이 구도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고 땅, 생물에 대해 배려해 주신다. 즉,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기로 결정하신다. 이 것도 또한 분명히 인간에 대한 약속 보다도 자연 만물에 대한 배려이므로 9장 이하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과 함께 한 단위로 묶기 곤란하다. 특히 하나님께서 8:22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연에 대한 보존과 자연을 통한 섭리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구도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본문을 9:1에서부터 9:17까지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이 부분의 가장 정당한 주석적 단위라 하겠다. 이러한 이유는 창 8:18 말씀을 통해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계획하셨을 때 이미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생물에 대해서는 단지 보존하라고만 명령하셨다(8:19-20).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자연 만물을 포함하지만 분명히 인간과 관계되는 9:1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9장은 앞의 8:15 이하, 특히 8:20 이하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8:18에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겠다 하셨고, 9:9-12에서는 그 언약에 그의 생물들도 포함시키셨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8:13 이하에서 말씀하신 생물들에 대한 보존과 축복의 확실한 인침의 표로 9:9 이하에서 생물들도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8:13 이하가 이 부분의 주석적 단위는 못 될지라도 이 부분을 주석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밀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III. 본문의 구조와 핵심

창 9:1-1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9:1-7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에 대한 축복이다. 둘째는 9:8-19로,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대로 노아와 그의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창 8:20-22(홍수에 대한 결산)

20절 노아의 번체
20절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번체
21절 멸하지 아니하리라
22절 자연의 준행

것이다. 그러므로, 첫 부분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둘째 부분은 이 축복에 대한 하나님 편의 확증의 언약이다.

첫 부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은 창조시 창 1:28 말씀을 연상케 한다. 우리는 창 1:28과 창 9:1 말씀을 비교함으로서 창조 당시의 축복과 타락 후 노아로 통해 주시는 축복이 어떻게 변하지는 살펴볼 수 있다. 이 두 사이의 현저한 차이는 다스림의 문제에 있다.

창 1:28(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창 9:1(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에 생물들을 인간의 손에 붙이심)
---	--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였다(창 1:26b, 28).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축복하시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 아무 것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와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9:2의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는 인간의 통치권이 아니라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 동물의 억압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 범죄로 인하여 상실되고 다른 생물처럼 번성하기만하게 되었다. 역시 다른 짐승들도 인간의 다스림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었다(창 9:2). 이것은 앞의 8:17에서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축복하신 내용과 1:22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곧 알 수 있게 된다.

창 1:22(창조시 생물에게) 창 8:17(타락후 생물에게) 창 9:1(타락후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마이 -- 충만아라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마리라	생육하고 번성마이 땅에 충만아라
-------------------	--------------------	-------------------

타락 전에는 생물들도 인간과 같이 충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생물들이 더이상 충만한 축복을 받지 못했고 인간의 식물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타락 전에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었으나, 타락 후에는 더이상 다스릴 수 없었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생물들에 대한 우위권을 계속 부여하셨다.¹⁾ 타락 이후 거역하는 생물들에게 잡아

1) 이런 의미에서 창 1:28의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인간의 일방적인 지배가 아니라

먹히지 않고 생물들이 오히려 인간을 두려워함으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게 된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²⁾

둘째 부분인 9:8-17은 이런 축복에 대해 언약으로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신다. 앞 부분의 축복은 궁정적으로 인간에 대한 “--하라”이지만, 뒷 부분의 언약은 “--하지 않겠다”는 부정의 표현으로 말씀하신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8:21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표출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미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셨기에 더이상 물로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의 변경이나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이미 홍수 심판을 하시기 전에 8:18에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창 9:11)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사람의 악함을 모르고 계시다가 심판 후에 알게 되신 것이 아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한 전 피조계의 고통과 위협을 심판으로 제거하심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고 정결한 것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존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석의 단위상, 7-8장의 구조상 9:1-17이 적합한 단위이지만, 내용상 이 본문은 8:15 이하와 계속적인 연결선상에 있다. 즉 8:15-22은 하나님께서 땅과 모든 생물을 보존하시고 축복하시고, 9:1-7은 인간을 축복하시고, 9:8-17은 이 두 축복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다.

8:15-22 8:17 모든 혈육 있는 생물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 축복의 대상
⇒ 축복의 내용

8:21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리라(8:21)
⇒ 보존의 결심

8:22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음
⇒ 보존의 내용

9:01-07 9:1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참고 7절)
⇒ 축복의 대상
⇒ 축복의 내용

9:2-4 산 동물은 먹되 생명되는 피 채 먹지 말라
⇒ 보존의 명령

자연의 순종에 따른 인간의 다스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인간의 지방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2) 하나님의 축복은 일차적으로 인간에 대한 보존의 배려이고, 더 나아가 타락한 인간에게 통치권을 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물의 소멸에 대한 보존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에게 창 1:28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창 1:28의 다스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연에 대한 보존의 의무가 각별함을 알 수 있다.

- 08-17 9:9 노아의 후손과 함께한 모든 생물
⇒ 언약의 대상
9:11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이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 언약의 내용
9:12-17 무지개를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고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 언약의 증거

축복의 대상과 언약의 대상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생물과 인간에게 각각 축복을 하시고, 9:8-17에서 이를 모두와 영세까지 언약을 세우신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 후에도 자연의 질서와 생명 있는 생물들을 축복하심으로 보존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존 은총이요, 모든 피조세계에게 주시는 창조주의 자연적인 은혜이다.

IV. 주석

9:01-07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멸 대신에 보존, 형벌 대신에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9:01 축복의 선언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 축복의 유일한 주체자는 언약의 하나님께서며 인간은 언약에 근거한 복을 받는 대상자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침된 주인이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중에 결심하셨던 바(창 8:21)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언이다. 비록 범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비를 그의 피조물에게 계속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나, 창 1:28과는 달리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없는 것은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비춰준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듯이, 인간의 다스림 하에 있던 생물들도 더이상 인간의 지배권에 순응하지 않는다. 비록 땅이 부단히 인간에 의해 정복되어 가고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대적하지 못하지만 피조계에 대한 원초적인 정복권은 상실된 것이다.

9:02 여전히 인간을 피조세계의 대표로 보존하심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을 지칭한다.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인간의 영향 하에 두시고 있다.

너희를 두려워 하며 너희를 무서워 하리니 -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 간에 아름다운 공존 관계가 유지되었으나(창 2:19) 타락 이후 이제는 허등 피조물들이 인간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고 인간보다 강한 동물에 의해 인간들이 위협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뜻 짐승간에 인간을 향한 본능적 두려움을 주심으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인간을 보존하신다. 여기서 ‘두려워 하다’는 모라(אָרְאַה)로서 원래 ‘깜짝 놀라다’, ‘도덕적으로 경외하다’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주신 생득적인 공포를 의미한다. 그리고, ‘무서워 하다’(מִתְּאַחֵר)는 ‘위축시키다’, ‘위협하다’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이는 인간들로부터 당한 무서운 경험에 의해 후천적으로 취득한 두려움, 불안감을 의미한다.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타락 후에는 영적 권위로 더이상 동물계를 지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동물들을 인간의 수중에 있어 그의 영향 하에 있게 하셨다. 모든 피조계의 대표성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9:03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배려(산 동물을 인간의 식물로 주심)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는 최초의 구절이다. 이는 창 1:29과 대비되는 구절로서 이는 홍수 이후 먹을 식물이 없는 것을 아신 하나님의 배려임과 동시에 인간의 악함을 시사해 준다. 이로써 동물들도 서로 잡아먹은 약육강식이 계속 되었다(이는 동시에 동물에 대한 배려이기도 함).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 육식의 허용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① 홍수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해진 결과 식물이 부족하자 비로소 육식이 허용되었다(Kalisch, Rosenmüller). ② 처음부터 허용되었으나 인간의 신체 구조상 채식이 적합하였으나, 홍수 후 연약해진 신체의 변화로 육식이 필요하게 되었다(Aquinas, Luther). ③ 타락 전에도 육식이 허용되었으나 여기서 그 허가가 새롭게 개신된 것이다(Calvin, Lange). 여러 견해 중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전체 맥락에서 볼 때 1번 견해가 타당하게 여겨진다.

9:04-06 생명에 대한 존엄(피에 대한 금지 규정)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 채 먹지 말 것이니라 - 성경에서 피는 생명과 동일시 된다(레 17:11, 14). 그러므로, 이 명령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①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므로 인간이 그 주권을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 ② 비록 짐승의 피일망정 피를 흘리고 먹는 일이 습관화되면 자연히 사람의 생명까지 경시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교훈하시기 위함이다(Calvin).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 ‘반드시(בְּאָנָי)’는 문자적으로 ‘왜냐하면’으로 4절의 이유이다. 즉, 하나님께서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생명을 해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찾는다(בְּגַע)’는 ‘추적하다’, ‘조사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피를 경시하는 일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벌하시겠다는 것이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

으리라 - 이는 피를 흘리고 먹는 바로 그 장본인에게 하나님이 행한대로 갚으실 것임을 보여준다.

6절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 4, 5절은 일반적인 피에 관한 것이고, 6절은 특별히 인간의 피에 대한 강조이다. ‘흘리다(לָפַת)’는 ‘소비하다’, ‘붓다’는 뜻으로 의도적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한다. 뒷 부분의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의 정확한 번역은 ‘사람에 의해 그 피를 흘릴 것이라(לְמַתָּה מִן־אָדָם יָפַת)’는 것으로서 이는 재판권을 사람에게 맡겨 간접적으로 시행하시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 아니라 -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원천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일반 생물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겠다는 결과적인 이유이지만, 인간의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보존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이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래도 보존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데, 어찌 인간이 이를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이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으나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님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상해하며 그 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형상 파괴죄가 된다. 이 구절은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려준다.

9:07 축복의 재선언(재확인)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안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 6절과 대조되는 구절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번성하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형벌 대신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1절 참조).

9:08-17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인간에게 베푼 축복을 언약으로 확증하신다.

9:08 언약의 두 당사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 언약의 두 당사자의 대면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포함시키신 것은 그 아들들로 이루어질 모든 족속에게 다 해당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 언약의 주체자 역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난다.

9:09-10 언약의 수혜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에게 세우리니 - 이는 언약의 대상, 언약의 수혜자를 가리킨다.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언약의 한편 당사자)에게지만 언약의 대상은 사람 뿐 아니라 사람의 영향 하에 있는 모든 생물을 가리킨다. 특히 이는 8:15-22에 말씀하신 모든 생물에 대한 축복과

고려신학보 26

9:1-7에 말씀하신 인간에 대한 축복을 둘 다 포괄하는 것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체자이신 언약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언약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의 이 축복과 언약이 없이는 인간과 모든 생물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9:11 언약의 내용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 하나님의 더 이상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창 8:21) 쓸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이는 언약의 핵심으로서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멸종을 자신 스스로 금하시는 피조물에 대한 자비이다.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홍수'는 정관사를 붙여 '그 홍수(גַּוֹּפֶה)' 즉, 노아 홍수와 같은 세계적인 홍수가 없을 것임을 나타낸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 여기서 '땅'을 언급하는 것은 홍수 때에 땅도 침몰되고 수장됨으로 땅에 임한 저주가 계속 미쳤기 때문이다(창3:18; 8:21). 땅에 충만하고 편만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은 것 등은 땅도 역시 인간의 영향 하에 있음을 보여준다.

9:12-17 언약의 증거

12절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 '영세까지'를 직역하면 '숨겨진 세대에까지(לְדָרְךָ שָׁוֹלֵם)'로서 이는 비록 인간들에게는 장래의 모든 일이 숨겨진 비밀처럼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낱낱이 아시고 미리 그들을 위해 계획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또한, 이 언약의 영원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종말에 새롭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실 때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언약의 증거(תִּירְבֹּחַתְּנָ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대해 보증하시고 그 언약과 함께 하심을,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심을 명백히 나타내는 '신호물', '표시', '전조'이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것은 14절의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과 대비되는 것으로 아무리 검은 폭풍우 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자비가 거기에 함께 하고 계심을 말해준다. 여기서 무지개가 이전에 없었으나 노아와의 언약 이후 비로소 생겨났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의 성격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기준의 별을 두고 맹세하신 것(창 15:5)에 근거할 때 무지개는 기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Calvin, Lang e.).

14절 내가 구름으로 … 나타나면 - 13절 참조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로서 효력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자신이 세우신 언약대로 피조세계를 지키시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도 역시 언약의 주체자와 수혜자인 대상이 명시되어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 이는 물이

심판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기능대로 사용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을 직역하면 '홍수를 위한 물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גַּוֹּפֶה הַשְׁׁמַנְיָה')'이다.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 이는 14, 15절의 반복으로서 비평학자들이 말하는 문서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지지하는 강조의 표현이다(14, 15절 참고).

17절 하나님의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 이는 언약의 마지막 확증이다. 12, 13절의 내용이 반복되어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로 험력을 있음을 가리킨다.

V. 본문의 신학적 의미

위와 같이 고찰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즉,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한다. 우리는 칼빈 이후 개혁 신학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해 온 자연과 일반인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사상을 이 본문을 통해 확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을 창조하신 것과 더불어 각 개체에게 종족 보존과 생명의 확산을 축복하셨다(창 1:22). 그러나,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계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달리 죄의 심각한 확산과 불의한 종족의 번식만을 가져왔다(창 6:1-4). 이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 인류와 자연계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 두번째의 축복은 죄악의 번영을 막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의 번영을 꾀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다.

또한 이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창 9:21), 하나님께서 죄의 짐대로 심판하신다면 인간은 모두가 죽게 되고 잠시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유예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개선의 가능성성이 없다는 실상을 깊이 아시고, 인간의 범죄로는 더 이상 피조계 전체를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자연에 대한 배려이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다.

하나님은 자연 보존을 위한 소극적인 조처(창 8:21)외에 홍수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의 질서 회복과 자연계의 정상적인 운행이라는 적극적인 조처도 약속하셨다(창 8:22).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는 인간을 피조계의 대표로 삼으신 것이다(창 9:2). 그러나, 이것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 7)는 중대의 축복이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는 지배권의 위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러시퍼드**